

# “종단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급선무”

## 중앙분담금 분담률 재조정 필요 고의 미납땀 10% 가산금 부과

### 조계종 재정연구위, 분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종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 위원회(위원장 조계, 이하 재정연구위)의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다. 재정연구위는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재정분과위원회 제 14차 회의에서 ‘분담금 제도 개선 점검 및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연구위는 “약 150여개 사찰에서 종단 분담금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편중이 매우 심하다”며 분담금 책정 기준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분담금 분담률 표가 1995년, 96년 중앙분담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교구분담금은 중앙분담

금 분담률의 1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담률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분담금은 분담률을 세분화해 분담금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법에 명기토록 해야 한다.

직영분담금 분담률 또한 종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분담금보다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직영사찰 지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관람료분담금은 현행 제도로 존치하되, 명칭을 개정하고, 사용처를 분명히 명기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단 목적사업으로서 교육특별 분담금을 각 사찰에 부과하는 방안이나 교육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단목적사업분담금은 환경, 통일, 복지, 국제화 등 사업계획 수립을 전제로 종단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 내지 분담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해 분담금 부과 대상에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담률은 중앙분담금 분담률 30% 이내에서 사찰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교구목적사업분담금은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종단목적사업 대외기금은 사찰 수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찰과 사찰사업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며, 종법에 명기해야 한다. 종단목적사업기금을 납부토록 하는 사찰부동산관리령을 폐지하고, 임대수입을 당해 사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

립토록 한다. 사용 시 교구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고서에는 또 “사찰 등급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찰 등급 사정을 위해 총무원에 중앙심사위원회, 교구본사에 교구심사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구본사와 직할사찰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말사는 교구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것이다. 말사는 교구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최종적으로 중앙심사위원회의 본심을 거쳐 등급을 확정한다. 또 심사위원의 수를 줄이고 외부 인사들의 참여와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찰이 고의로 분담금 납부기한을 넘길 때 연체기간에 대해 연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해

야 한다. 총무위원장은 총무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납자를 징계에 회부토록 하고, 주지 책임용 때 결격사유의 하나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재정연구위 위원장 조계 스님은 “현행 분담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찰(납세의무자)에게 자발적 과세를 유도할 수 있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종단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모든 종도들에게 양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분담금 조정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분과위는 총무원 집행부와 함께 9월 주요 사찰사법 분담금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예·결산 1억원 이상 사찰 중 분담금 비율이 낮은 사찰사찰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ews.com

###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조계종 지관 스님 예방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8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이명박 후보에게 “앞으로 조국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후보로부터 경선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들은 뒤 “진면인(眞勉忍, 진실로 힘써 참는 것),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 육바라밀의 하나로 참음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잘 참았고, 앞으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나라를 위한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고, 지관 스님은 “건강을 잘 챙기라”고 덕담을 건넸다.

예배에는 총무부장 원문, 기획실장 승원,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과 한나라당 이상태 의원(한나라당 불자회장), 최병국 의원, 주호영 의원, 대변인 나경원 의원 등이 배석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안내로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 “장운 스님 이사 해임 무효”

####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정아씨에 대해 ‘가짜 박사’ 의혹을 제기해 동국대 이사회로부터 지난 5월말 이사해임된 장운 스님의 해임이 무효라고 법원이 결정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현 수석부장판사)는 장운 스님이 자신의 해임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월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하나였던 신씨 의혹 제기의 경우 신씨의 예비대 박사학위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거나 별다른 방어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즉시 해임결의에 이른 점과 이후 신씨의 박사학위 위조가 밝혀진 점 등에 비추보면 해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사 해임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9월 있을 후임 이사 선임에 현재 이사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시급히 해임결의 효력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제주불자연합측이 시몽 스님측 스님들을 절 밖으로 들어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 몸싸움으로 번진 관음사 사태

#### 시몽 스님측·제주불자聯 충돌

제주 관음사에서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측과 회주 중현 스님측 제주불자연합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 등 4명은 8월 23일 오후 4시 30분 경 대웅전에 진입했다. 이후 10여 명의 스님들도 관음사에 진입했으나 제주불자연합측 200여명이 스님들을 관음사 밖으로 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시몽 스님과 재무스님 2명이 타박상을 입었으며, 제주불자연합측 4명도 부상을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

이와 관련 시몽 스님측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강제로 절 밖으로 끌려나갔다”며 “경찰에 관련자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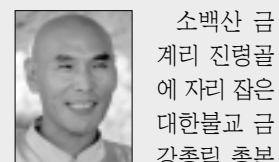
제주불자연합측은 “신도들 몰래 관음사에 진입한 스님들이 이면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음사 진입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불자연합측은 21일 시몽 스님이 제기한 ‘주지직무대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이 ‘인용’하기로 결정함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불국정토 건설을”

#### 금강사 9월 1일 대법회



소백산 금계리 진령골에 자리 잡은 대한불교 금강종림 총본산 소백산 금강사가 새로운 수행의 장을 여는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대법회’를 9월 1일 오후 1시 봉행한다.

불국정토 건설을 발원한 정봉 스님(법회대회장·사진)은 “종교가 바로서야 세상이 바로서고, 종교 종단 종파를 초월해 바른 사회지도자를 육성하라고 한다”며 “종단 종교 종파를 떠나서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받겠다”고 금강사 건립 취지를 밝혔다.

법회 식전행사로 진야예술단이 전통국악과 클래식한 음악적 요소를 가미한 ‘포른티어’를 연주한다. 본 행사는 제1부 불국토의 메아리, 제2부 불국토의 향연, 제3부 불국토의 향기로 진행된다. (054)638-6546

고영배 기자

### 현대불교신문

####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 바로 잡습니다

본지 642호 5면 ‘불교문화 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금강산 건봉사 기사 중 ‘간간에는 수해나 병충해를 입어도 절집인심이 야박하여 도지를 감해 주는 일이 없단다’ 표현은 필자의 취재 중 오해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술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건봉사는 흥년이 들면 도지를 감면 혹은 면제해 주고 있으며 사하촌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문장으로 인해 건봉사에 누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 조계종 행사교육원 등록일 확정

2008년 2월에 봉행 예정인 조계종 제34기 행사교육원 입교 대상자 입산 기준일 및 교육원 등록 기준일이 확정됐다.

교육원은 “대상자는 9월 20일까지 입산해야 하며, 9월 30일(우편소인 유)까지 교육원에 등록해야 한다”고 8월 20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말사는 교구본사에 대상자 행사등록신청서와 신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직할사찰은 교육원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상, 고졸 이상 학력자, 기타 종합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등록 가능하다. (02)2011-1803

남동우 기자

### 포교사단 8단계 수계실천 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훈)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서 ‘포교인 정기연수 및 8단계 수계실천 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증령으로, 포교원장 혜중 스님을 계사로,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감마아사리로,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을 교수아사리로 거행된다.

1000여명이 참석하며 월야정진, 재가보살계 수계, 모범포교사 시상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 공 고 문

대한불교원효종은 종조인 원효성사의 대도를 받들어 삼계유심의 근본진리를 깨닫고, 만법적멸의 금강삼매에 머물러 일도해탈의 보살행원을 닦아서 만선동귀의 지성불국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고

본종(대한불교원효종)은 1989년 종헌개정으로 법적전통성 시비로 이종오스님측과 윤규현스님측이 양분화되어 법적분쟁이 시작되어

대법원 2006다 85457 소유권말소등기 준재심판결에의하여 대한불교원효종의 종정은 신정균스님으로 2007년2월22일 판결로인하여 대한불교원효종의 법적전통성을 인정받아 대한불교원효종의 종정 신정균스님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신정균스님 이후 윤규현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된후 대법원판결 원인으로 법적전통성이 인정되어 대한불교원효종의 임시종정선임을 2007.6.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비합13)으로부터 김순석(휴원 용일)스님을 임시종정으로 선임받아 서부지방법원 결정에 의하여 2007.8.9 비상임시중양중회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개최하고 성황리에 폐회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11.17선고, 2005나79044판결 (대법원 2007.2.22선고, 2006다 85457판결)에의하여

이종오스님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아(1992년 제30회 중회에서 종정불신임결의및 체탈도첩되었고) 임의로 남용회변호사를 임시종정으로 선정되었으나 당시 중회의원 선거에 관여하거나 중회의 개최및 폐회에 참석하여 선시를 하지 않은 사실(2004제가합 제141호 사실조회답변서)의거 위 중회 당시 이종오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원들이 참석하여 임의로 중회를 개최하여 이종오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하고 이종오스님이 승무진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임명한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1993.3.28 제7대종정 이종오스님 임기만료 이후 이종오스님이 임의로 구성한 사집단에의하여 만들어진 불법단체이고 그 단체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인정되지않는 행위임을 공포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의 임시종정 김순석(휴원 용일)스님은 종조원효성사의 화쟁사상에 입각하여 종단을 대통합함에 있어 대한불교원효종의 전 종도들께서는 임시종정권한으로 종헌.종법에 입각하여 종단구성을 하고 있으나 본종의 승려 신도는 이를 양지하시고 종단 조직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1(2007)년 8월 20일

대한불교원효종 임 시 종 정 김순석(휴원 용일)  
중앙종회의장 이순서(원각)